

현내면

현내면은 법정리 10개리 행정리 16개리 8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90,24km²이며, 북위 38° 30' 00"을 기준으로 대진리 앞바다에 어로운계선이 지나고 있다. 동해안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소재하고 있어 관광개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진리, 철통리, 죽정리, 산학리, 화곡리, 마달리, 마차진리, 명파리, 배봉리, 제진리, 사천리, 검장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현내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친절한 복지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현내면 주민들 면사무소 함지선 사회복지사 칭찬 ... 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글 올려

“아직까지 배울 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데, 지역민들이 저를 너무 이쁘게 봐 주셨나봐요.”

현내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함지선 사회복지사(24세, 사진)가 친절한 민원처리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내면사무소 사회복지사로 임명된 그녀는 4개월 남짓 일한 요즘 지역주민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어 동료 직원들의 부러움까지 사고 있다.

함씨의 친절봉사 서비스가 알려진 것

은 최근 고성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칭찬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대진에 사는 노재용씨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에 장애인 수당 때문에 면사무소에 들렀는데, 복지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했다.

노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는가 하면 한마디 한마디 정성껏 대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함씨는 현내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08가구로 상당히 많아, 혼자서 담당하기에 다소 힘이 부치지만 입가엔 항상 웃음을 잊지 않고 있다.

함씨는 “보다 많은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복지사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내면 동료 직원인 박지은(25세, 복지도우미)는 “너무 착실하고 성실한데다 책임감 또한 강해 민원인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직장에서 신임이 두터워 동료로부터도 칭찬을 듣는다”고 전했다.

박승근 기자



“대진에서 키운 꿈 세계로 미래로”

대진초등학교 제80회 졸업식 ... 19명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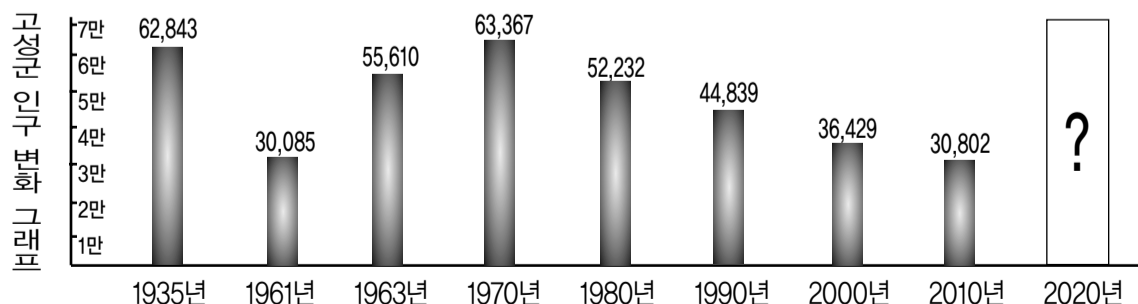
졸업의 계절을 맞아 지난 17일 오전 대진초등학교(교장 김형섭) 체육관에서 현내면 기관단체장 및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진초등학교 제80회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은 모두 19명이었다.

“대진에서 키운꿈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졸업식은 학교장 회고사, 졸업가 및 교가제창, 2010년도 교내 외 행사 및 각종행사 참가 입상 현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승근 기자

고성인구 늘리기 고성신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군 신규 전입 세대에 고성신문 1부를 1년간(4만원) 무료로 배부합니다



전입세대 무료 구독신청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